

# 은퇴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 한국의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윤 현 숙 · 이 미 진

## 요 약 문

서론: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국내 문헌은 남성만을 표본으로 포함시킨 횡단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애주기를 통해 경제활동의 종사상 지위가 낮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은퇴와 같은 경제활동의 불연속성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가정 내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종단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별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다른지, 또한 성별에 따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역할이론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Kim & Moen, 2002). 먼저, 역할이론에 의하면, 은퇴는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며, 역할의 상실은 자아정체감의 위기로 이어져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은퇴 전후의 심리적 안녕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은퇴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1-2년 이내에 은퇴생활에 적응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eitzes, & Mutran, 2004; van Solinge & Henkens,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은퇴를 한 노인은 은퇴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덜 안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생애주기적(life course perspective) 관점에 의하면, 은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현재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개인적·사회적 자원,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배경적 맥락(context)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Kim & Moen, 2002). 생애주기적 관점에서는, 공적·사적 연금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덜

안녕하게 되며,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적 자원은 은퇴로의 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유배우 상태,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은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거 경제활동의 종사상 지위가 낮고 경제활동의 불연속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내 역할이 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은퇴로의 진입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방법: 본 논문은 서울과 춘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화와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의 1차년도와 3차년도 패널자료(n=1,157)를 이차분석하였다. 심리적 안녕은 3차년도 PGCMS 척도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은퇴는 (1) 지속적 비은퇴상태(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비은퇴), (2) 은퇴로의 진입(1차년도 비은퇴, 3차년도 은퇴), (3) 비은퇴로의 진입(1차년도 은퇴, 3차년도 비은퇴), (4) 지속적 은퇴상태(1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은퇴)로 구분하였다. 준거집단은 지속적 비은퇴상태이며, 은퇴로의 진입, 비은퇴로의 진입, 지속적 은퇴상태는 각각 가변수이다. 통제변수로는 1차년도 심리적 안녕과, 거주지역,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경제적 자원은 연금수급여부, 주택의 자가여부, 한 달 용돈 규모, 주관적 경제상태를 통해, 개인적 자원은 교육 수학기간, 만성질환의 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사회적 자원은 유배우상태,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은퇴변수가 3차년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변수와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통제한 후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은퇴로의 진입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은퇴와 심리적 안녕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남성노인의 은퇴로의 진입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은퇴로 진입한 경우, 이전의 심리적 안녕 수준이 낮은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은 경우, 사회활동참여정도가 낮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덜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이전의 심리적 안녕 수준이 낮은 경우,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수학기간이 짧을수록,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덜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는, 역할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경제활동의 중단은 역할상실을 가져오고, 이는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남성노인에게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설명하듯이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성별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는 달라, 여성노인에게는 은퇴변수가 심리적 안녕과 연관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첫째 남성에 비해 여성은 생애주기를 통해 경제활동의 불연속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중단인 은퇴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정내 역할이 남성에게는 불분명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은퇴가 남성노인에게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역할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일을 통해 느끼는 자아정체감이 크면 클수록 은퇴가 주는 역할상실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일반적으로 종사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일을 통해 느끼는 자아정체감이 더 강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성별 차이가 은퇴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성별에 따라 은퇴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가 다르고,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퇴준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경우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남성노인에게는 은퇴 직후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여성노인에게는 공적·사적 연금의 가입 필요성과 노후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Kim, J. E., & Moen, P. (2002).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ife-course, ecolog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57B(3), P212-P222.
- Reitzes, D. C., & Mutran, E. J. (2004).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Stages and factors that influence retirement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Development*, 59(1), 63-84.
- van Solinge, H., & Henkens, K. (2005). Couples' adjustment to retirement: A multi-actor pane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60B(1), S11-S20.